

환경단체, 영산강 오염도 정밀분석

광주지역 환경단체가 영산강 보(狀) 개방에 따른 수질·퇴적층 오염도 추이를 정밀 분석한다.

10일 광주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환경연합은 오는 26일 영산강 죽산보·승촌보 상류에서 수질·퇴적층 오염도를 조사한다.

조사에는 환경연합·대한하천학회 관계자, 박정근 카톨릭관동대 토목공학과 교수 등이 참여한다.

환경연합은 강물·저질토 등 시료를 채취해 전문 기관에 분석을 의뢰한다.

특히 승촌보·죽산보 수문이 단계적으로 개방된 지난해 11월13일 이후 강 생태계가 복원 조짐을 보이고 있는지 확인한다.

보 구조물이 준치때 바닥에 쌓인

26일 죽산보·승촌보 상류 구간서 시료 채취 검증 수문개방 전후 조사 결과 비교...보 처리 방안 논의

유기물로 퇴적층이 오염된 실태가 있는지, 산도(pH)·용존산소(DO)·총인(TP)·생물학적 화학적 산소요구량 등을 측정해 수질이 개선됐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살핀다.

4대강 사업 당시 강 분류 바닥 굴착에 따른 물 낙차 발생으로 폐사된 어류가 많은지도 조사한다.

보 개방 전인 지난 2016년 7월 수질을 조사한 결과와 이번 분석 결과를 비교·분석한 뒤 환경당국과 보 처리 방안도 논의할 방침이다.

영산강은 수문 일부 개방 이후

물 흐름이 빨라지고 수위가 낮아졌다. 이에 강 분류와 지류가 합류되는 지점에 모래톱이 생겨났고 철새와 동물의 서식·먹이활동도 다양해질 가능성이 제기됐다.

하지만, 4대강에 설치된 보를 전면 개방한 뒤 자료를 축적해 빠른 시일 내 보 처리 방안을 결론내려야 한다는 환경·시민단체의 주장과 달리, 보 처리를 연기한 정부의 방침이 소극적 대응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환경연합은 4대강 사업으로 물

(생활·공업·농업용수)을 확보한 지역이 강 분류 주변으로 한정돼 실제 물이 부족했던 해남·무안·영광 등지에서 사용하지 못했던 점도 문제 제기할 계획이다.

아울러 꾸준한 모니터링으로 보 전면 철거의 필요성을 거듭 요구할 방침이다.

최지현 광주환경연합 사무처장은 "물 흐름의 연속·지속성이 확보돼야 생태계 다양성이 보장될 수 있다. 수문을 열더라도 보 구조물이 준치때 있는 이상 하천 환경에 악영향은 계속 될 것"이라며 "수문 개방 효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는 만큼 보 철거와 관련한 모니터링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남규 기자

고장전화기로 '손목치기' 40대 사기범 구속

여성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손목을 부딪혀 고장난 스마트폰을 떨어뜨린 뒤 합의금을 챙긴 40대 사기범이 구속됐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10일 상습적으로 고의 교통사고를 낸 뒤 돈을 가로챈 혐의(사습사기)로 이(40) 씨를 구속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 씨는 지난 2012년 8월부터 2014년 3월까지 광주지역 내 이면도로에서 서행하는 차량에 액정이 깨진 스마트폰을 부딪혀 떨어뜨린 뒤 수리비·치료비 명목으로 보험사 6곳과 운전자 17명으로부터 총 2650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씨는 사체 빛을 갖기 위해 차량 후시경·사각지대에 손목이나 신체 일부를 부딪힌 것으로 드러났다.

이 씨는 사고로 인해 스마트폰 액정이 깨졌거나 다친 것처럼 운전자를 속여 1명당 5만~100만원 상당의 합의금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짧은 골목길을 배회하며 주로 여성운전자를 노린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피해자 17명 중 13명은 여성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법부 공무원을 사칭한 이 씨는 피해자들에게 위조한 명함·공무원증·재판기록이 적힌 수첩 등을 보여주며 합의를 종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보험사는 이씨가 특정 기간 보험금을 9차례 받은 사실을 수상히 여겨 금융감독원에 신고했다. 경찰은 이 씨의 금융거래내역을 확인한 뒤 사기 행각을 밝혀냈다.

밀양 초등생 납치 용의자 20대 남자 검거

경남 밀양에서 하교하던 초등학생 A양(3학년)을 납치했다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풀려주고 달아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밀양경찰서는 10일 오후 1시50분경 창녕군 한 PC방에서 이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 이(27)씨를 미성년자 약취유인 등 혐의로 붙잡았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9일 오후 밀양의 한 마을회관 근처에서 통학버스에서 내려 귀가하던 A양을 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이날 오전 9시 45분쯤 경찰의 수사망이 좁혀지자 심적 부담을 견디지 못해 마을회관 근처에 본인 소유 포터 트럭을 끌고와 A양을 내려 주고 달아났다.

경찰은 이씨 포터 트럭을 추적해 이날 오후 1시50경 창녕의 한 PC방에서 이씨를 검거했다.

A양은 다친 데는 없으나 다소 불안정한 모습을 보여 인근 병원에서 안정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동료 숙여 2억 챙긴 대기업 직원 구속

울산 동부경찰서는 직장 동료들을 숙여 수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대기업 직원 A(47)씨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어머니가 정신이 오락가락해 병원비가 많이 들어간다. 대출을 해주면 원금과 이자를 퇴직금을 정산받거나 아파트를 팔아서라도 갚겠다"고 직장 동료 4명을 속여 총 2억 1000만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직장 동료들에게 돈을 빌리기 전 3억5000만원 가량의 빚을 저 이미 퇴직금을 정산하고 아파트 담보대출도 받은 상태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동료들에게 빌린 돈으로 자신의 빚을 갚거나 생활비로 쓴 뒤 지난 3월부터 직장을 무단결근하고 잠적해 왔다.

한 동네 친구 60명 교통사고 사기 작당

유용비를 마련하기 위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3억원대 보험금을 빼돌린 동네 친구 60명이 무더기로 붙잡혔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동네 선취배로 구성된 김(20)씨 등 60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김씨 일당은 2016년 9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35차례에 걸쳐 수도권 외곽순환 고속도로 합류지점에서 속도를 높이거나 상대 차량 쪽으로 핸들을 꺾는 수법으로 보험금 3억6000만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고속도로 합류지점에서 진로변경 시 발생하는 교통사고는 과실율이 명백하고, 우연을 가장하기 쉬운 점을 범행에 악용한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확인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자신들의 수법을 '청룡열차'에 비유해 돈이 필요할 때 "청룡열차 타러 가자"며 서로에게 범행을 제안했다.

광주시 다중이용시설 소방 안전불감증 여전

광주시 소방안전본부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119기동단속반을 운영한 결과 다중이용시설 10곳 중 2곳에서 안전불감증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단속 결과 비상구를 폐쇄하거나 계단 물건적치, 소방시설 기능 정지, 건축물 임의 증축 등 20곳에서 총 25건의 불법행위가 적발됐다.

주요 사례는 피난방화시설 위반 9곳, 소방시설 유지관리 위반 8곳, 건축 관계법령 위반 3곳 등이었다.

광주시 소방안전본부는 비상구를 폐쇄하거나 소방시설을 차단한 17곳 가운데 16곳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1곳은 시정조치했다.

또 건축물을 임의 증축한 3곳에 대해서는 적법조치토록 기관 통보했다.

서은홍 기자



개구리 방사해요 10일 서울 양천구 연의생태공원 상단 저류지에서 열린 '북방산개구리 방사' 행사에 참여한 학생들이 개구리를 방사하고 있다.

'망원경 19년 방치' 전남도교육청 부적정 행정 대거 적발

여천고, 합평·광양·장흥교육지원청 감사 결과 공개

과학수업에 사용하는 기자재를 19년 동안 사용하지 않은 채 방치하거나 교원 호봉을 부당하게 책정하는 등 전남지역 일선 학교와 교육지원청의 부적정한 행정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전남도교육청은 10일 여수 여천고, 합평·광양·장흥교육지원청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와 처분 결과를 공개했다.

여천고는 1999년 5월 대당 47만 원짜리 천체망원경 8대를 구입한 뒤 4대만 사용하고 4대는 현재까지 개봉하지 않은 상태로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기간제교사의 호봉획정을 하면서 인정되지 않는 개인과외교습 경력을 포함해 부당하게 지급한 급여 108만원 가량을 회수 조치했다.

합평교육지원청은 교육장 표창 업무처리 소홀, 징계처분 대상자 담임교사 배정, 증축 교사 실내공기질 및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업체 점검 소홀 등이 적발됐다.

시설공사 감독과 준공검사 소홀, 교직원 보수 지급 부적정에 따른 예산 등 850만원은 회수토록 했다. 25명은 주의처분됐다.

광양교육지원청도 기간제교사 호봉 산정 부적정, 영재교육원 학생

주민주택번호 처리 소홀 부당한 출장비 지급 등이 적발됐다.

도교육청은 부당한 출장비와 공사계약 체결 및 시설공사 감독 소홀, 교직원 보수 부적정 지급 등에 따른 예산 1200여 만원을 회수하고 관련자 28명에 대해 주의조치했다.

장흥교육지원청은 교육장상 표창 업무 소홀, 신규임용 교원 호봉책정 부적정, 세출예산 집행 문제, 학교급식 위생·안전관리 소홀 등이 드러났다.

도교육청은 부당하게 사용한 예산 1200여 만원을 회수하고 관련자 28명은 주의처분했다.

김정환 기자

2030세대 농지지원사업

- 농지매입비축사업
- 농지임대수탁사업
- 경쟁희생지원 농지매입사업
- 농지연금사업
- 농지규모화사업

농어촌 행복파트너 농지은행사업

농어촌의 행복에 지지 않는 별이 되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는 농어민들이 지금보다 더 큰 행복을 이어갈 수 있도록 농지은행은 영농개시에서 은퇴까지 든든하게 지켜드립니다

- 2030세대 농지지원사업**
20~39세 창업후계농에게 5~10년 장기임대차, 장기저리(3.0%, 1~2% 농지매입자금 용자 지원)
- 농지임대수탁사업**
자경 어려운 농지소유자 농지의 임대를 위탁받아 전업농에게 5년 이상 장기 임대
- 농지연금사업**
65세 이상 고령농업인 농지담보로 매월 연금처럼 생활안정자금 지급

- 농지매입비축사업**
고령은퇴 이후 농업인 농지 매입비축을 통해 농지시장 안정 도모
- 경쟁희생지원 농지매입사업**
자연재해 부채 등 경영위기 농가의 농지매입 후 10년간 임대보장, 경영 정상화 지원
- 농지규모화사업**
농지매입 임대차 교환분할을 통한 농가의 영농규모 확대 지원